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이선주
출장기간	2010. 2. 22-2. 25		출장지	영국 런던정경대학 (London School of Economics)		
출장목적	-영국 정경대학의 다문화대담 워크숍 (Workshop on Multicultural Dialogues) 에서 논문 ‘Ways of Thinking about Foreign Brides and Multiculralism’ 발표					
경비부담	영국 런던정경대학					
주최기관	영국 런던정경대학					
워크샵 주요 내용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주 -다문화주의와 이주, 정책 -다문화주의, 젠더, 국가 -일상생활과 다문화주의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0. 4. 22.

출 장 복 명 자 : 이선주 연구위원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영국 정경대학 다문화대담 워크숍

2010. 4. 22.

보고자 : 이선주

(평등사회통합연구실, 평등문화정책센터 연구위원)

□ 출장일정

출장일정	내용	
2010. 2. 22(월)	오후 1: 20	-서울에서 런던으로 출발
	오후 4:00	-런던도착, 호텔로 이동
2010. 2. 23(화)	오전 10: 30-12: 30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이주
	오후 2: 30-5:30	-다문화주의와 이주, 정책
2010. 2. 24(수)	오전 10:30-1:00	-다문화주의, 젠더, 국가
	오후 2:30-4:00	-일상생활과 다문화주의
2010. 2. 25(목)	오후 8:10 런던에서 서울로 출발	
2010. 2. 26(금)	오후 5:00 서울 도착	

1. 2010년 2월 23일(화):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다문화주의와 이주, 정책에 대한 워크숍 진행

가.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 John Solomos(City University)는 현대사회의 인종과 인종차별에 대한 이론의 핵심점을 영국의 맥락에서 논의
 - 인종과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 영국사회학의 주요 주제가 됨
 - 인종(race)과 민족(ethnicity)이 같은 종류의 사회적 집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인종차별주의(racism)를 민족(ethnicity)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음. 이는 인종차별주의는 민족(ethnicity)보다는 인종(race)과 밀접하게 관계된 용어이기 때문임
- 김무경(서강대)는 다문화주의의 논리에 대하여 그리스의 철학과 연결하여 논의
 - G. Grand의 신화에 대한 인식론과 종교와의 연결 속에서 Hermetica Ratio를 주장

나. 다문화주의와 이주, 정책

- 박해광(전남대)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역설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유해한 용어라고 주장

- 이는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다양성(diversity)의 수용을 의미를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태도는 아직까지도 민족적,인종적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기 획일화되어 있음.
 - 한국에서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혈통의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반대급부로도 이용됨
 - 외국인 신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들이 타문화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들이 다름(others)에 대한 수용을 증가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러할 때 다문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생길 수 있음
- Nasar Meer(Southampton University): 최근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이슬람과의 연계로 인해 다문화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문화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은 정부의 통합(integration)과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음
 - Dr Meer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civic thickening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 비판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비정치화 현상에 대하여 문제 제기
 - 하여 그는 1965년에 도입한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이상을 가진 다문화주의를 옹호하고, 영국의 전통과 법에 근거한 평등과 기회의 증진을 강조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봄
- 최종렬(계명대): 최근 한국에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이 다양성에 포용하는 것보다는 한국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결혼이주여성의 동화의 영역을 전체 한국사회라고 설정하기 보다는 가부장적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동화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타적임
 - 다문화주의를 통한 사회적 응집은 결혼이주여성이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틀 속에서 이주여성 자체가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여 소수자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임.

-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주여성을 개별화하여 동화하기 보다는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자녀들은 ethnicity 집단에서 race 집단이 될 것임

2. 2010년 2월 23일(수): 다문화주의, 젠더, 국가 및 일상생활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워크숍 진행

- Nira Yuval Davis(University of East London): 11/11 테러사건 이후, 이슬람에 대한 저항이 있음. 그래서 최근 영국사회의 다문화화된 시민권과 소속감의 정치(belonging politics)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논의
 - 영국 보수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자들의 정책은 분리주의를 양성한다고 주장해 오면서 이주자들의 통합을 저해해왔음
 - 최근 인종적 평등 위원회의 위원장(th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은 '다문화주의의 죽음 (Death of Multiculturalism)'을 선언하였음
 - 영국의 White Paper는 모든 영국시민의 결속을 위하여 첫째, 영국시민이 되기 위해 전제조건으로 언어(영어)의 습득, 둘째 유럽의 인권법(European Human Rights Act)의 가치를 수용할 것을 요청.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주자들의 자녀가 영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선, 인권과 평등에 대한 신념, 법의 준수, 관용의 실천, 양성평등 등의 영국의 공통의 가치를 배워야한다고 주장
 -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준수하는 것은 영국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 전제인 것을 틀림없으나, 최근 노동당의 소속감, 인권과 민주적 가치의 주장은 애국주의의 신호물로 볼 수 있음.
- 김현미(연세대): 한국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가부장적 가정 지향적 복지 모델'로 정의 할 수 있음. 이 모델에서 결혼이주여성을 가계유지를 위한 재생산자로 위치 지움
 - 한국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가정에서 어떻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가르치지만,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교육에 오히려 놀라워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내, 가정과 지역사회 간, 가족 밖에서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문화에 근거한 공동체, 종교적 모임을 만들면서 코스모폴리탄 문화(cosmopolitan culture)의 전파에 기여함

- 이선주(여성정책연구원): 2000년대 접어들어 여성결혼이주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적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그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서로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는 쉽지 않음
 - 한국에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점차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정하는 열린사회가 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문화보다는 한국문화에 적응하여야 한다고 봄. 이런 현상은 일반인들이 다문화주의를 말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다문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체화되지 않은 것을 나타냄.
- Les Back(Goldsmiths College): 영국에서 ‘다문화주의의 위기’란 말이 엄격한 법 적용과 이주자공동체의 감시·감독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인구이동 문제는 이제 이주문제를 넘어서 전 지구화된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humanity works 의 질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최근 영국사회의 인종차별주의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띠고 있으며, 과거 식민지의 관계를 재현하고 있음.
 -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종차별의 복잡한 형태와 식민지 관계의 재현 등을 살펴볼 때 새로운 형태의 반인종차별주의 정책이 필요함

3. 시사점

- 가. 최근 영국의 다문화주의 논의는 9/11테러사건 이후 종교와의 연계성 속에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임.
- 나. 영국은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였고, 식민지에서 이주에 온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정착하여, 시민권을 획득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이주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였음.
- 다. 그러나 9/11사건 이후 영국의 이민정책이 점차 보수화되고 있어, 다문화주의의 위기라는 표현이 정계와 학계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음
- 라. 한편, 한국은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정책을 논할 때, 그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

는 경향임

마. 이런 경향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우리 보다 먼저 발전한 서구에서는 낯설게 보일 뿐만 아니라, 논의 자체가 매우 협소하고 지협적인 것으로 비치고 있음

바. 향후, 다문화주의와 정책을 논의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포괄적 정책과 논의가 필요할 것임

자료: 따로 붙임